

사회

광주식약청 “위생 교육 안 받았다”

폐업신고 업체에도 과태료

126곳... 대부분 5~7년전 적발 업체

식약청이 불황으로 실제 영업을 하지 않다가 폐업신고를 늦게 한 업체들에게까지 ‘위생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다.

9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광주, 전남·북 및 제주지역 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126개소에 대해 모두 2607만7200원의 과태료 및 과징금이 미납되고 있다며 최근 납부 독촉 공고를 냈다.

해당 업소들이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에 따라 매년 식품산업협회에서 실시하는 위생보수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과태료 징수 사유의 대부분이다.

식약청은 적발된 지 이미 5~7년이 지났지만, 과태료 미납에 따른 채권 소멸 방지를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 업체 대부분이 영업권은 있지만 불경기와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운영을 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폐업상태나 다름없는 실정이라는 점이다.

대부분이 관할세무서에는 사업자등록폐지신고를 했지만 영업허가를 내준 광주식약청(지난해 1월 관련업무 지자체로 이관)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매년 위생 보수교육의 대상으로 분류된 것이다. 또 대부분 적발 이후에 폐업신고를 했다.

광주시 동구의 한 업체는 “7년 전에 고막 등을 수입해 유통을 해오다 가 남편(67)이 쓰러지면서 병간호 등이 이유로 영업을 하지 못했다”며 “뒤늦게 폐업 신고를 했는데, 과태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고 토로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영업에 의한 실질 소득이 없는 것은 알고 있지만, 폐업신고가 없는 상태에서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것은 명백한 법을 위반이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또 영업허가도 재산권의 하나로 인식되기 때문에 해당 업소들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서 폐업을 유도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관련 업무를 이관 받은 지자체에서는 사실상 폐업중이면서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식약청과 거꾸로 과태료 부과보다는 폐업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광주시 서구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영업실태 등을 확인한 뒤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최종 폐업처리 한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9일 장성군 삼계면 한 아파트에서 육군 수사관들이 현장 감식을 마치고 총기로 자살한 정 대위의 시신을 수습, 앰뷸런스에 옮겨 실고 있다.

무장탈영 대위 장성서 총기 자살

여자친구 아파트 찾아와 말다툼 후 사망

해당부대 10시간 동안 몰라 총기관리 구멍

전방부대에 근무하던 현역 육군 대위가 총기를 소지한 채 탈영해 여자친구인 대위와 다툼 후 총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해당 부대는 정 대위가 무장탈영했음에도 10시간 넘게 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져 군 기강 해이와 허술한 총기 관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9일 새벽 3시20분께 장성군 삼계면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육군 모부대 소속 정도(33) 대위가 쓰러져 있는 것을 여자 친구인 A(28) 대위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정대위는 K2 소총으로 A대위 숙소 현관문에 3발을 쏜 뒤 곧바로 자신의

머리를 겨냥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지기 전 정 대위는 A 대위와 심하게 다툼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장에는 K2 소총과 실탄이 든 탄창이 남겨져 있었다.

목격자들은 “총소리가 난 뒤 ‘살려 달라’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린 뒤 다시 총성이 울렸다”고 말했다.

총성에 놀란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과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으나, 정 대위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기도 연천의 한 부대에 근무하는 정 대위는 전날 일과를 마치고 K2 소총과 실탄 30발을 소지한 채 탈영해 장성의 한 부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A 대위를 만나기 위해 아파트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대위는 A 대위와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었다.

정 대위가 소속 부대에서 장성이 있는 A 대위의 아파트 숙소까지 350km 이상을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하는 동안 해당 부대는 소총과 실탄의 분실 사실을 알지 못했다.

군 관계자는 “정대위가 어제 소속 부대에서 사격 훈련에 참가한 뒤 총기와 실탄을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경위는 현재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군 헌병대는 정 대위가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경위와 시간, 자살동기를 수사하는 한편 총기와 실탄을 소지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부부싸움 아내 흥기 살해

광주북부경찰은 9일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주모(80)세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주씨는 8일 밤 9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우산동 자살의 아파트에서 아내(57)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씨는 범행 후 119에 전화를 걸어 “내가 흉기로 아내를 찔렀다”며 구조를 요청했으나 아내는 끝내 숨졌다.

자수한 주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조사 결과 주씨는 평소 가족들이 자신을 소외시키는 것 같아 화나고 아내를 의심해 이전에도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태권도 고수에 딱걸린 도둑

화장품 가게 강도짓 50대 도망가다 관장출신에 걸리

“하필이면 태권도 고수에게...”

화장품 가게에 들어가 강도짓을 한 50대가 태권도장 관장 출신 시민에게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은 9일 화장품 가게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안모(50)씨를 조사하고 있다.

안씨는 8일 오후 5시 10분께 광

주시 동구 대인동 모 화장품 가게에 들어가 여주인(31)을 흉기로 위협, 금고에 있는 현금 18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범행 후 달아나다가 시민 이모(28)씨에게 붙잡혔다.

이씨는 피해자가 “강도야! 같이 어!”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50m 가량 추격해 안씨를 붙잡았다.

이씨는 “주차된 차에서 친구와 얘기하고 있는데 ‘같이 어’ 소리가 들려 다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겠다 싶어 무작정 쫓아갔다”며 “안

씨가 달아나면서 흥기를 버려 아주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겸손해 했다.

이씨는 태권도 공인 4단으로 남원에서 1년여간 태권도장 관장을 운영한 적도 있으며 경호업체에도 근무했었다. 이씨는 “최근 교통사고로 몸이 성치 않았지만 술을 많이 마신 안씨를 제압하는 게 어렵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씨는 경찰에서 “집도, 직업도 없어 살기가 힘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씨를 용감한 시민으로 선정해 포상금을 출 방첨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동거남 母 죽인 40대女 무기징역

“못 시귀게 한다” 불만 살해

광주지법 형사 6부(문유석 부장판사)는 9일 동거남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살인·현주건조물 방화)로 기소된 김모(여·42)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7일 새벽 3시10분께 정모(여·당시 59)씨가 운영하는 광주시 서구 한 편의점에 들어가 내실에서 자던 정씨의 머리를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동거남 안모씨의 어머니인 정씨가 평소 만남을 반대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안씨가 신발갑을 구하려 외국에 간 사이 정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고 불을 지르는 등 범행동기가 나쁘고 수법이 잔혹하다”며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행”이라고 판시했다.

임동룡기자 exian@kwangju.co.kr

아파트 페인트 작업 인부 둘 추락 사망

9일 오후 2시15분께 영광군 영광읍 동도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던 백모(47)씨 등 2명 이 추락했다.

5층 높이에 올라가 있던 크레인 바스켓이 추락하면서 안에서 작업 중이던 백씨와 이모(42)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아래쪽에서 크레인 장치를 조작하던 또 다른 이모(46)씨도 떨어지는 바스켓에 다쳐 경상을 입었다.

서부취재본부=조익성기자 ischo@

남구청, 양과동 의료폐기장 소송 항소

최근 양과동 의료폐기물 처리장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광주지 법구가 10일 항소장을 제기한다.

남구는 9일 오전 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과동 의료폐기물 시설은 (구)국도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대상에 해당 되고, 개발

제한구역 안에서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는 (구)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해야만 허가 가능 하다”며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양과동 폐기물 시설의 허가 취소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1심 재판부의 법률적 해석이

잘못된 부분이 많다”며 “관리계획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의료폐기물 사업자가 입안제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남구 관계자는 “양과동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됨으로써 주민들이 입는 공익적 피해가 사업자의 이익보다 크다”며 “광주시, 남구, 주민이 함께 ‘소송지원단’을 꾸려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는 지난해 2월 (주)한재가 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폐기물처리장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남구청의 폐기물 건축허가취소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며, 공익에 비해 손해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크며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액 (단위: 원)	비고
[아파트]					
2012타경 8107	1	서구 한계중앙로 116, 101동 3층 307호 [공동주택, 이지더원아파트] 84.8215㎡	아파트	190,000,000 190,000,000	
2012타경 8763	1	남구 서문대로690번길 3, 202동 2층 210호 [진월동, 대주아파트] 84.41㎡	아파트	130,000,000 130,000,000	
2012타경 9452	1	광산구 운수동 65-50 가천아파트 102동 1층 105호 59.88㎡	아파트	66,000,000 66,000,000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012타경 7333	1	화순군 화순읍 교리 181 333㎡ [공유지최초면적지분3분의1전부]	단독주택	43,764,460 43,764,46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공유자 우선매수권행사제한
2012타경 13123 [중복]	1	동소 181 82.26㎡ 부속건물 1.8㎡ [단층창고] 2.0㎡ [빈소] 제시외 창고 등 8.8㎡ [공유지최초면적지분3분의1전부]	단독주택		
2012타경 9315	1	담양군 금성면 대곡리 234-1 73㎡ 동소 234-2 60㎡ 동소 245-1 331㎡	대도	22,144,000 22,144,00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2012타경 10995	1	담양군 금성면 대실길 77 64.50㎡ [현황: 79㎡] 부속건물 창고 61.80㎡ 제시외 창고 등 27㎡	단독주택		
2012타경 7494	1	장성군 북이면 백산리 303-27 18㎡ 동소 303-30 4㎡ 동소 304-8 3㎡ 동소 304-9 24㎡ 동소 303-32 41㎡ 동소 341-6 6㎡	대	1,296,000 1,296,000	일괄매각, 매각의 건물을위험병적지상권성립여지있음 [목록4]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액 (단위: 원)	비고
2012타경 7494	2	장성군 북이면 월계리 89-2 40㎡ 동소 89-3 23㎡ 동소 239 390㎡	대	3,864,700 3,864,7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2타경 8602	1	나주시 세지면 석산리 569 456㎡ 동소 571 337㎡ 동소 572 311㎡ 동소 573 691㎡	전	18,097,000 18,097,0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매각의 건물을위험병적지상권성립여지있음 [목록1,3,4]
2012타경 10148	1	담양군 대곡면 대산리 310-5 9252㎡ 동소 310-8 490㎡	임야	126,646,000 126,646,000	일괄매각
2012타경 11370	1	장성군 통영면 구림리 1897-2 496㎡ [공유지상권유지분 15.23%전부] 동소 산 103 16364㎡ [목록1과지분내용동일] [분묘소재물부유지권성립여지있음]	임야	7,088,000 7,088,000	일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행사제한
[상가/오피스텔, 근린시설]					
2012타경 6262	1	동구 계림동 297-41 145㎡ 동소 297-41 1층103.11㎡ [근린시설] 2층96.73㎡ [사무소] 제시외 창고 등 31.7㎡	대	243,396,530 243,396,53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2012타경 7722	1	나주시 송월동 1099-7 545.2㎡ 동소 1099-7 지하층422.24㎡ 1층317.93㎡ 2층360.62㎡ 3층360.62㎡ 4층360.62㎡ 5층360.62㎡ 6층79.38㎡ [현황: 108.4㎡] 제시외 창고및보일러실 등 18.8㎡	대	1,253,790,150 1,253,790,15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목록2유치장, 음식점, 일용점점, 의원, 사무소
2012타경 8367	1	북구 북동 302 269.4㎡ 동소 302 1층104.94㎡ 2층88.68㎡ 제시외 창고및가우 등 14.6㎡	대	588,165,840 588,165,84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2012타경 9195	1	동구 계림동 100-11 금호계림주상복합 상가동 1층 103호 19,050㎡	대	78,000,000 78,000,00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기타]					
2012타경 9735	1	동구 동명동 158-4 364㎡ 동소 158-4 1층175,395㎡ [점포] 2층183,205㎡ 3층183,205㎡ [2-3층상가사무소] 4층183,205㎡ [주방] 지하상1250.07㎡ [점포] 제시외 채력단층 등 50.7㎡	대	620,129,440 620,129,44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농지법 농지취득자격증명요를 제출해야 하는 최고면적(농지취득자격증명요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가능)을 초과하는 면적은 면적외로 별도 매각처리를 받습니다.
2. 매각기간 : 2012. 8. 24. [금] 10:00
3.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장
4. 매각대상 : 광주지방법원 입찰대상

- 매각방법
 - 입찰방법에 관한 기입사항은 사전면접,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의 액수, 기꺼고 납입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부대에 넣어 입찰에 투입하면 된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회 [0.01%]에 해당하는 보증금의 지급이유 또는 현금 증빙여부나 지급보증유무등을 채권 문서(일괄 보증서)를 준비하여 받는다.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격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입찰보증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권자로 선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한다.
 - 최고가매수권자로 선정된 매수신청인의 제안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을 일괄매각이 종료되는 즉시 반환한다.
-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대하여 매각결정금액으로 결정하고, 매각결정금액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결정기일에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된다.
 - 지정된 대금지급기한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매각허가 취소된다. 단, 매각대금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미지급 금액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 소유권인정 및 인도
 -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장권, 가압권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 소유권인정 및 인도 시 매수인이 가압권 및 압수권을 위해서는 통상 매각대금의 5%를 납부한 후 통상 매수권확인서 및 통상 매수권확인서 등 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안전처행정정보를 가진 신상정보를 검색하여 제출하면 법원이 위 용기를 축적하여 준다.
 -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책은 부동산 소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청구할 수 있다.
- 주의 사항
 - 매각된 부동산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지장권 등이 설정된 날로부터 먼저 주된특별권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특별권 설정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 일반민간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일자 1주일 전부터 매각결정 기일 전, 현황조사보고서 및 매각허가서 등 우리법원 민사집행 신청자료에 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매각조건 내 내용은 매각결정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에 내수일 때에는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한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찰보증금 첨부 후 입찰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인정: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권자로 선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취소됩니다. 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에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물건에 매각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회되거나 집행이 취소조정된 경우, 또는 매각일과 집행일 사이에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에 공고되는 물건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의 경우, 출생사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분증명을 하지 않으므로 우선법원의 게시된 공고 및 법원청 방문하여 매각결정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 매각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ction.go.kr [법원공고 - 법원매각정보]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과하도록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특히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를 미루고 매각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법원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대해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정기 매각결정명세서 등을 꼭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2. 8. 10.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조영훈